

간호교육과정

서 문 자
(서울의대 간호학과 교수)

1. 서 론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으로써 이는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적 관건이다. 이 교육과정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교육철학으로 구간을 이루고는 있지만 교육자체가 인류사회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영향받는 역동적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거듭 변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지식이 급격히 팽창되고 과학적 접근방법이나 의학학적 적용이 관측한만큼 발전되고 있는 의료사회에 있어서 간호교육과정은 현시대적 관점에 준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들 수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즉 간호가 추구하는 현대적 의의는 무엇이며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는 간호이론의 정립된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사회가 기대하는 전문간호인의 역할은 어떠한가 하는가 등을 간파하여 이를 교육 과정에 투영함으로써 적절한 간호교육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최근에 와서는 이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각 교육기관들이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개발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과연 어떠한 교육과정이 optimal professional practice을 valid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는 계속 숙고해야 할 것이다. 어떤 교육과정은 아직도 의학적 개념의 테두리를 벗

어나지 못한채 cosmetic change만 거듭하여서 전문적 간호와 인간적 측면 보다는 전통적인 질병관리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을지도 모르며 또는 급진적 변화로 현실감이 결여된 고립된 교육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변화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적절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야 말로 간호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길이며 이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향상은 물론 인부를 위한 양질의 간호재공이라는 사회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더므로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간호의 이론적개념이 명백하게 매겨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사회에 부응하며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간호인의 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우리 간호교육의 당면과제라 보겠다.

이러한 쟁점에 준하여 필자는 진정한 간호중심적 교육과정 개념틀(framework)을 탐색하기 위한 전단계로 지금까지 간호교육과 관련된었던 몇가지 형태의 Curriculum-model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개념틀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과정모형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철학이론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병원부속의 도제교육의 범주안에서 medicine oriented된 교육형태라든지 소인간호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간호문제나 인간발달을 기준으로 인간·사회·건강·간호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에 투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호교육을 위시한 모든 Health Personnel Education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Subject-centered-Curriculum과 간호문제나 간호진단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함으로써 분리되었던 모든 과목들을 융합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간호의 functional element를 중심으로 한 능력원위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을 들 수 있다. 이는 간호에 필요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어떻게 간호를 하느냐 하는 관점이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택하고 있다. 이 세가지 모델을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1) Subject-centered Curriculum

이 모형에서 간호원은 과학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임상경험전에 광범위하게 생리적, 물리적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는 assumption을 가지고 있다. 해부, 생리, 병리, 생체통계학등 다량의 과학적 사실과 이론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사실적 지식의 암기위주로 인해 이론 그 자체를 알고 있는자(knower)에 머무르게 되고 분절된 학습방법(lockstep instruction)에 때문에 종합화능력의 부족으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er)이 미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교과서나 참고서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일정하게 학습되는 까닭에 human learning의 다양성이 결여되기 쉽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있어서도 임상 각과별 경계가 분명하여 내과, 외과, 정신과 등으로 분리된 Subject 중심의 교육으로 간호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생실습은 최신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급화된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퇴위하고 복잡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호중재 실습을 하게 되므로 졸업후 흔히 대하게 되는 일반환자에 대한 대응적 간호나 인간의 생물학적 수준이상의 사회 행동적 문제와 관련된 건강보존 및 예방간

호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간호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원이라는 제한된 지역을 벗어났을 때 인간은 생활환경의 맥락속에서 건강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환경적 위협이나 사회적 여건, 그리고 human ecology을 변하게 하여 취할 수 있는 인사의 건강보존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미약하게 되는 점으로 볼 때 자칫 학교교육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사장이 되고 간호원은 지역사회 건강관리 보호대열에서 맡은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라는 교육환경에서는 항상 학생들은 상부조직의 지시와 감독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때로는 정작 중요한 시기에 책임감 있게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하려는 태도의 결여나 독자적 의사결정(decision-making) 능력부족으로 맹목적 간호중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특수수준의 병원뿐만 아니라 전인류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인지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ubject-centered-curriculum은 여러가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간호이념 중심의 전인류대상의 간호를 위해서는 그 모순성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새로운 교육과정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이다.

2)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

통합된 교육과정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던 과목들을 일원화된 하나로 융합하려는 시도이다. 즉 간호교육에 있어서 학습과 교수는 didactic course와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가정하에 형성된 것이다. 통합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의미있는 개념으로 과목들을 통합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핵심되는 개념(Core Concept)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핵심개념이란 각각의 교과목에서 파악된 내용의 집합이 아니라 간호전문직에 있어서 필수적

인 개념의 합이며 교육목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기본요구 중심의 간호문제타던지 패턴화된 간호진단이나 간호과정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과정, 또는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이나 생의 주기중심의 교육과정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심개념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내용이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되고 각 과목간의 중복이나 과잉됨이 적어지며 이론과 실기의 내용을 좀더 근접되게 전개시킬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수들 자신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자신이 아집속에서 헤어 나지 못하면 결국 형식만의 통합이지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과정이 되기 힘들므로 과목별 또는 교수별로 두꺼운 벽을 허물어야 하는 현명함과 용기가 요구된다.

3) 능력본위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

능력본위교육과정은 간호현장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기능)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조직하여서 적절한 교수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목표가 추구하는 행동적 변화가 완전히 성취(master)된다는 assumption을 전제로 한다. 즉 이 교육과정 모형이 목적하는 바는 한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 속에서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준하여 표준화된 간호원의 능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Nursing Competence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간호원으로써 광범위하면서도 과학적인 지식과 전문인다운 태도, 그리고 실재적 기능을 통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능력있는 간호원은 여하한 간호현장에서라도 주어진 임무(Task)를 틀림없이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임무나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수준에서는 이행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Physical, Biological science와 Social cultural factor, 환

자간호와 wellbeing에 영향주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등이 요구되고 human life에 대한 가치성을 인지해야 하며 대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관리나 건강교육 측면에서의 지도력을 갖춘 전문적 역할을 채택하여야 한다. Nursing Competence는 다양하므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때로는 Competence 자체가 보호하고 그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인적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과정구성에 주요행정이 되는 간호기능 및 능력들이 분명하고 현실감있게 표출되는 것이 Competency-Based Curriculum가 갖출 수선 조건이 된다.

한편 능력본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완성학습 즉 learning for mastery의 원칙에 준한다. 다시 말하면 간호학생이 간호원으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학당시의 entry level을 진단하여 점진적 교수(stepwise instruction)를 시행하며 유연성 있는 강의계획과 잦은 학생사정을 통하여 nursing sophistication을 향한 cumulative learning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완전학습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배워 나갈수록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같은 특징을 지닌 능력본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통합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더 교수자신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간호능력의 요소를 파악하고 learning for mastery의 이론을 이해하며 능력사정법의 개발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수는 강의자라는 입장보다는 계획자, 교수관리자(teaching manager), facilitator 및 사정가(evaluator)로의 역할을 동시에 인지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과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

간호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철학적 교육이념이며 이는 교육목표와 목적, 그리고 교육과정을 위한 개념틀의 중심지주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즉 인간관, 사회관, 건강론, 간호관 등이 표출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적 특징, 生의 목표, 人間의 능력이라던지 사회에 대한 신념, 人間행동과 관련된 문화적·윤리적 가치와 그 변수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건강과 간호에 대한 정의, 이에 영향주는 요소들, 간호목적, 환경과의 관계등도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전문인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교육자체에 대한 철학과 신념도 예외없이 진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은 어느 교육 프로그램에서던지 개념적틀의 요소가 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념틀은 상기에서 언급된 여러 진술이나 개념틀이 함축된 있는 간호이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개념틀이 상관관계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교육과정이 Orem의 Self-care 개념틀의 기본이론으로 채택하였다면 교육철학도 강의 및 실습 배경원칙도 모두 Orem의 이론에 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즉 universal self-care requirement는 물론이며 therapeutic self-care demand와 self-care agency도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탈된 self-care state는 무엇인가 파악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layou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humanity oriented된 교육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념틀은 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골격이 되며 이에 따라 학습경험의 배열이나 individual concept의 조합이나 매점 등이 성립된다. 간호철학의 범주내에서 각 학습내용은 종횡적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교육과정 내용 파악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Santora는 selected, interrelated concept의 cohesive supporting linkage을 Conceptual framework이라고 하였고 King은 개념틀이 Curriculum의 basic structure을 제공하고 간호영역의 가치와 기능별로 system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념틀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섬세하게 구사되어서 단단하게 교육과정의 기저를 이룰 때 바람직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인 학습내용의 계획과 적절한 학습단위배열이 가능해진다.

한편 교육과정 개념틀에는 이론적으로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데 수평적 요소란 매 학년마다 모두 이 개념틀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며 수직적 요소란 학년별로 학습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요소들은 각 학년별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교육이 시행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교육철학과 목표에서 언급되었던 이념이나 개념틀이 누락됨을 방지한다. 교육과정내에 투여된 수평적 수직적 개념 요소들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건강, 간호 등의 belief을 근거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하자. 여기서 인간과 사회라는 개념은 개인—가족—사회의 맥락속에서 종횡으로 교수됨을 원칙으로 하여 저학년부터 간호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하므로써 학생들은 그 과정속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개념을 Health-illness Continuum으로 볼 때 저학년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사정과 간호문제 진단에 대한 학습을 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acute-ill patient에 대한 간호중재를 학습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교육과정의 종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간호기능도 수직적 요소로 고려해 보면 dependent-interdependent-independent function 이나 primary-secondary-tertiarily preventive Nursing function의 pattern 또는 collaborative-coordinative nursing으로 전개하여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점진적 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학년마다 반복 학습하게 하므로써 간호접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과정, 대인관계술, 인간발달론 등이 횡적인 요소로 전개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평 또는 수직적 개념요소로 함축성 있게 교육 과정에 투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면 저학년에서는 강의나 실습을 통하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을 이해하면서 간호원의 present role과

simple task을 숙지하게 된다. 점차 학년이 높아지면서 Competence의 성취 및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간호과정실습을 통하여 건강문제, ill-patient의 이해를 증진하고 간호역할도 포괄적이며 또 다른 건강요원들과의 상호협조관계를 간파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간호현장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 그러는 가운데 지도적 능력이나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의 발전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수직적 개념요소들은 때로는 simple to complex의 원칙에 준하기도 하고 때로는 change process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한다.

한편 교육과정의 개념들형성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방식과 인간·사회·역사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교양과목설정, 그리고 인체의 이해나 병인론 질병의 속성을 알기 위한 의과학적 접근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간호학부의 계속공부를 위한 간호연구과정이나 변화에 대한 전략등 상위교육체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과목설정도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첨단과학지식은 물론 정치사회적 영향과의 관련성까지도 결부된 폭넓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어

지금까지 세가지 교육과정모델인 Subject-Centered curriculum과 Integrated Curriculum 및 Competency-based Curriculum에 대하여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 보았으며 간호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보았다. 그리고 교육과정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또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개념적들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과 그 구성요소들을 살펴 보았고 각각의 개념들과 교육철학과의 연계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목 배열에 있어서 역시 주된 개념들 안에서 과목별로 분절되고 단편적인 개체가 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개념이 집약되어야 함을 명기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여러 학교에서 발전된 간호이론을 중심으로 전인적이며 포괄적인 교육과정 개선작업이 매우 활발하므로 앞으로 간호학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그러나 개발 그 자체도 중요하지 만 일단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수정보완하고 또 자체 프로그램을 평가하므로써 앞으로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accreditation system 도입에 초석이 될 수 있어야겠다고 본다.